

## 함평군, 재가 치매환자 건강 전수조사 나섰다



함평군은 31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관련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를 열고 현재 각 자택에 머물고 있는 재가(在家)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 중증장애인·군복무 중 장애인, 군무원 필기시험 면제

국방부가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포,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되는데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한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0여명으로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7월 계획된 공·경채시 필기시험은 정상 시행하고 이번에 개정된 필기 면제 직위에 대해선 연말에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치매안심센터서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 열고 방안 논의 건강상태·생활실태 등 조사카로…조호물품도 전달해

이번 회의는 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복지 시설이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임시 폐쇄됨에 따라 재가 치매환자의 건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동이 제한되는 치매환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 내부에 고립될 가능성이 높

다고 보고, 재가 치매환자들을 중심으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은 이날부터 안부전화 등의 방식으로 환자별 건강상태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약물복약지도, 김연병 예방수칙 등을 교육했다.

또한 독거 치매환자 등 고위험 치매환자들에게는 기저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각종 조호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초 예정됐던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여파로 출출이 취소되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우려가 크다”며, “여건이 좋지 않지만 센터가 보유한 가용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치매환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장흥군 장평면, 요양시설에 사랑의 봄꽃 전달

#### 화훼농가 돋기 ‘꽃 사주기 운동’ 전개



장흥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돋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평면에서도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코로나 19 극복 사랑의 꽃 전달 등을 기관·사회단체 협조를 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 목포시 연동 주민, 독거노인 위해 면마스크 제작해 전달

목포시 연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전해져 미담이 되고 있다.

최근 연동에서 식당 ‘수미연’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진 사장은 지역의 독거노인 50세대에 면마스크 50매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였다.

김혜진 사장과 딸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건강에 좋은 오가닉 면으로 된 원단을 구입하고 정성껏 바느질하여 포장한 면마스크 50매를 연동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기탁하였다.

기탁하신 김혜진 사장은 “우리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마음이 불안하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여 마스크를 못 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장평면 화훼단지 재배 화종으로는 카네이션, 라넌큘러스, 알스트로메리아, 옥시 등이 있다.

꽃 사주기 운동 첫 주자로 나선 장평면번영회(회장 유금렬)와 이장자치회(회장 김경렬)는 형형색색의 봄꽃을 구입(60만원 상당)해 장흥요양병원,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장흥노인전문요양센터에 전달했다.

번영회와 이장자치회 관계자는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문병우 장평면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가 고충을 겪고 있다”며, “화훼농가도 돋고, 따뜻한 봄날 병상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병상 생활에 큰 힐링소가 되고자 봄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으로 만들었으니 예쁘지 않더라도 잘 사용해 달라”고 마음을 전하였다.

목포=박정수 기자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전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포항  
광양장애인지원 대상 모집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항·광양 지역 대상으로 운영중인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하는 ‘희망날개’와 장애인 이용 시설을 사용자 관점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희망공간’ 사업 신규 대상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시작한 ‘희망날개’는 선별된 장애인들에게 의족, 맞춤형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독서대 등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보조기구를 지원 받은 장애인 체육선수가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30대 장애인 청년이 7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차립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직) 중인 장애인과 과학·기술·예술·체육, 사회교육 등 각 분야별 꿈을 가진 장애인을 발굴해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공간’은 열악하고 노후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전성과 편의성, 위생환경, 공간활용 등 복지공간 및 시설을 개선해 장애인들의 편리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사회화를 지원하는 나린센터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계단 조명과 색감, 가구 구입 및 배치, 실내 안전장치, 심리 안정실 공간 신설 등 모든 동선과 시선을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재구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탈바꿈시켰다.

희망공간 지원 대상은 포항·광양시 30인 이하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주간/단기보호센터 등이다.

희망날개, 희망공간 신청은 31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포스코1%나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메일(nanum@poscofoundation.org)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부권취재본부 김승호 기자